

2017

태종 국어

서울시 9급 기출문제 해설집-B책형

공우리
@cafe.naver.com/5gonguri



2017.06.24.

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! 기출문제 완/벽/분/석

정답

2017년 6월 24일 서울시 9급 국어 책형 정답				
1번	2번	3번	4번	5번
1	1	4	1	4
6번	7번	8번	9번	10번
2	3	1	3	3
11번	12번	13번	14번	15번
2	2	4	2	4
16번	17번	18번	19번	20번
1	2	3	3	2

<http://cafe.naver.com/5gonguri>



2017.06.24.

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! 기출문제 완/벽/분/석

1.

정답 ①

‘살다 - 죽다’는 중간 항이 허용되지 않는 모순 관계이고, 나머지는 모두 중간 항이 허용되는 반대 관계이다.

2.

정답 ①

‘개-살구, 헛-웃음, 낚시-질, 지우-개’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.

① ‘건어물(乾魚物)’은 ‘마른’ 또는 ‘말린’을 뜻하는 접두사 ‘건-’과 명사 ‘어물’이 결합한 파생어이다.

② ‘금지곡(禁止曲)’은 ‘금지(명사)’와 ‘곡(명사)’이 결합한 합성어이다.

③ ‘한자음(漢字音)’은 ‘한자(명사)’와 ‘음(명사)’이 결합한 합성어이다.

④ ‘핵폭발(核爆發)’은 ‘핵(명사)’과 ‘폭발(명사)’이 결합한 합성어이다.

3.

정답 ④

‘녕’은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[훈민정음 초성 17자]

·아음(牙音): ㄱ, ㅋ, ㆁ

·설음(舌音): ㄴ, ㄷ, ㄹ, ㄺ

·순음(唇音): ㅁ, ㅂ, ㅍ

·치음(齒音): ㅅ, ㅆ, ㅈ, ㅊ

·후음(喉音): ㅇ, ㆁ, ㅎ

4.

정답 ①

제시된 글은 대중이 수긍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옳음을 주장하는 대중에게 호소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글이다. 예문과 동일한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나는 글은 ①이다.

②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: 어떤 논제의 반증례가 제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논제는 참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

③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: 부적합하고 대표성이 결여된 근거들을 이용하여 특수한 사례를 성급하게 일반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

④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: 자신의 불쌍한 처지나 억울함을 호소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이 잘못을 면책받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

5.

정답 ④

이 글의 서술자인 소년은 일본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생활에 만족하는 인물로 적극적인 친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서술자의 말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술자의 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.

① 서술자는 조선인을 비판하고 있다.

②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.

③ 제시된 글에는 주인공 외의 다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.



2017.06.24.

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! 기출문제 완/벽/분/석

6.

정답 ②

① '선릉'은 유음화가 일어나 [설릉]으로 발음하고, 'Seolleung'으로 표기한다.

③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'낙동강'은 'Nakdonggang'으로 표기한다.

④ 체언에서 'ㄱ, ㄷ, ㅂ' 뒤에 'ㅎ'이 따를 때에는 'ㅎ'을 밝혀 적으므로 '집현전'은 'Jiphyeonjeon'으로 표기한다.

7.

정답 ③

'뒤풀이'는 뒷말이 거센소리로 시작하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 '맥줏집'은 한자어 '맥주'와 순우리말 '집'이 결합한 말로 뒷말의 첫소리가 [ㅈ]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.

① 부는 → 붓는: '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.'를 뜻하는 단어는 '붓다'이므로 '붓는'이 적절한 표현이다.

② 넉넉치 → 넉넉지: '○○하다'가 줄어든 때 '하다' 앞의 받침이 'ㄱ, ㄷ, ㅂ'으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'하'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소리일 경우에는 'ㅎ'이 남아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거센소리가 된다. ②는 '넉넉하지'가 줄어든 말이므로 '하'가 통째로 줄어 '넉넉지'가 된다.

④ 로써 → 로서'로써'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,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고 '로서'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다. 따라서 '자료로서'가 올바른 표현이다.

8.

정답 ①

② 주격 조사 '가'는 16세기 중반부터 문헌에 등장한다.

③ '·'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된 이후 소멸되었다.

④ '뽕'은 세조 이후에 소멸되어 'ㅅ/ㅈ'로 변화였다.

9.

정답 ③

두괄식 문단은 글의 중심 문장이 가장 앞에 오는 문단을 뜻한다. 이 글의 중심 문장은 '㉠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.'이다. ㉠, ㉡, ㉢은 ㉠의 사례에 해당하는 문장이므로 ㉠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.

10.

정답 ③

이 시는 윤동주의 '별 헤는 밤'으로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, 갖가지 상념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. 여기서 '별'은 회상의 매개체이며 동정하는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. 따라서 ③이 가장 적절한 감상이다.

① 하십시오체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친구를 청자로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.

② 현실 비판적 시각은 나타나지 않는다.

11.

정답 ②

'굴적대다'는 '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.'를 뜻하는 말이다.



2017.06.24.

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! 기출문제 완/벽/분/석

12.

정답 ②

- ① 토의(討議 칠 토, 의논할 의):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. 義(옳을 의).
 ② 사고(思考 생각 사, 생각할 고): 생각하고 궁리함.
 ③ 선택(選擇 가릴 선, 가릴 택):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. 先(먼저 선).
 ④ 준거(準據 준할 준, 근거 거):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. 擧(들 거).

13.

정답 ④

‘한여름[한녀름]’은 ‘ㄴ’ 음이 첨가된 것으로 첨가 현상의 예이다.

- ① 국만[궁만]: ‘ㄱ’이 ‘ㅇ’으로 바뀐 비음화로 대치(교체) 현상의 예이다.
 ② 물난리[물랄리]: ‘ㄴ’이 ‘ㄹ’로 바뀐 유음화로 대치 현상의 예이다.
 ③ 입고[입꼬]: ‘ㄱ’이 ‘ㄲ’으로 바뀐 된소리되기로 대치 현상의 예이다.

14.

정답 ②

제시문은 첫 문장에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는 구별된다고 말한 뒤에(정) 두 번째 문장에서 이를 반박하고 있다(반).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마르크스의 진의(眞意)가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에 있다고 했으므로 ㉠에는 함에 해당하는 ㉡가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.

15.

정답 ④

필자는 누워 있다가 우연히 산을 보고 누워서 산을 보니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. 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바뀐다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.

16.

정답 ①

㉠과 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는 ‘헛수고’이다.

㉠ 가물에 도랑 친다.

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,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㉡ 까마귀 미역 감듯

①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,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②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세밀하지 못하고 거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① 헛수고: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. 또는 그런 수고.

② 분주함: 몹시 바쁘게 뛰어다님.

③ 성급함: 성질이 급함.

④ 뒷고생: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고생.



2017.06.24.

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! 기출문제 완/벽/분/석

17.

정답 ②

- ① 도야(陶冶 질그릇 도, 풀무 야): 도기를 만드는 일과 쇠를 주조하는 일. 또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② 개전(改愼 고칠 개, 고칠 전):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.
- ③ 쇄도(殺到 빠를 쇄/죽일 살, 이를 도): 전화, 주문 따위가 한꺼번에 세차게 몰려듦. 또는 어떤 곳을 향하여 세차게 달려듦.
- ④ 골몰(汨沒 골몰할 골, 빠질 몰):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.

18.

정답 ③

‘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.’를 뜻하는 ‘동안’은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
- ① 창 밖 → 창밖: ‘창밖’은 ‘창문의 밖.’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.
- ② 우단천 → 우단 천: ‘우단 천’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.
- ④ 일 밖에 → 일밖에: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서 ‘그것 말고는’, ‘그것 이외에는’의 뜻을 나타내는 ‘밖에’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.

19.

정답 ③

㉠, ㉡, ㉢은 모두 환자가 한 행동이므로 ㉠, ㉡, ㉢의 주어는 환자이다. 하지만 보호자 연락을 취한 것(㉣)은 환자가 한 행동이 아니라 화자가 한 행동이므로 정답은 ㉢이다.

20.

정답 ②

- ㉠ 1970년대: 신경림의 「농무」는 1975년 작품이다.
- ㉡ 1920년대: 카프(KAPF)는 1925년에 결성되었고, 한용운의 『님의 침묵』은 1926년에 출간되었다.
- ㉢ 1950년대: 구상의 「초토의 시」는 1956년에 발표된 작품이다.
- ㉣ 1930년대: 김기림의 「기상도」는 1936년에 발표된 작품이다.